

## ■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뮤지컬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12일(금) 13:00~17: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20일(토) 10:00~19: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광보, 김일송, 박병성, 손신형, 정달영, 황진수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뮤지컬 분야는 지원신청 24개 단체 중 결격 대상 없이 최종 24개 단체가 1차 서류심의 대상이었으며 총 지원신청액은 3,869백만원, 배정예산은 1,431백만원이었습니다.

심의는 내부 전담심의관을 포함해 연출, 기획 등 다양한 연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습니다. 각 위원은 개별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1차 서류심의를 통해 예상되는 최종 선정 사업의 약 1.5배수 정도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11개 단체를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 심의는 사업규모, 지원신청액, 기존 사업 추진 시 집행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보았을 때 무리하게 예산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결국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고통분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예산 심의에 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1차 및 2차 심의 공통적으로 채점제로 운영하였으며, 심의기준별로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의위원별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하였습니다. 심의위원별 채점 등급은 각 신청 사업들 간 상대평가 및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각각 A 95점 B 85점 C 75점 D 65점 E 50점으로 환산 적용되었습니다.

심의 기준은 공고된 바와 같이 신청 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5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축제의 성과와 평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업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뿐 아니라, 축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객 참여도와 향유 성과 역시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연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기존 지원 경험 여부에 따라 평가상 차별을 두지는 않았으며, 신규 신청 단체라 하더라도 사업 계획이 명확하고 성과와 공공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결정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고려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책정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단체가 기존 사업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축제 운영 여건의 어려움과 안정적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 금액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비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원금을 책정하되, 보다 많은 단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대표 축제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공연을 운영하는 축제의 특성상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각 축제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며 관객과 만나온 대한민국 대표 축제들이 내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